

광주 서울 보선 다자구도로 가나

새정치·새누리·국민모임 후보 이어 ‘시민 후보’ 가능성

4·29 광주 서구를 보결선거를 앞두고 반(反) 새정치민주연합 전선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재야 세력이 서구를 보결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항할 범시민 통합후보를 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민모임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노동당, 옛 통합진보당 등과 연대를 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1대1 선거 구도를 만들 경우 그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와 민주평화광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재야 진영은 25일 '4·29 서구를 국회의원 보결선거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이를 방조

시민사회단체·재야 진영

오늘 연석회의 대책 논의

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한 채 지역사회의 기대를 안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진보정당 등 정치 세력이 모두 배제된 가운데 순수한 시민사회단체와 재야진영만이 참석해 대책위 구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선 대책위가 구성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대책위가 꾸러질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치단체들과의 연대”라며 “먼저 대책위가 시민후보를 내고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선 정의당 대표도 최근 광주에서 기

자들과 만나 “광주 서구를 보결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안의 야당세력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고 밝힘에 따라 반(反) 새정치연합 후보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보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에 맞설 다양한 구상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 후보 경선도 관심이지만, 반 새정치연합 후보가 탄생할지, 그 경쟁력은 얼마나 될지도 이번 보선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29 광주 서구를 보결선거에는 조영택 전 국회의원,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3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새누리당은 조준성 전 이영현 국회의원 보좌역이,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광주시

의원 출마선언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서 행사장에 임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장, 구본무 LG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한국의 메디치가문 돼달라”

세계 대표 3세 경영인들과 오찬

삼성 이재용·현대 정의선·효성 조현상 등 靑초청

미래 유망산업 문화예술분야 투자 확대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세계총수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메디치가문이 돼주시고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치가문은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한 이탈리아의 유명 가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포지) 활동과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해온 재벌그룹 총수와 국내 우수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하기는 지난 2013년 8월28일 국내 민간 10대그룹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등 재벌그룹 오너와 우수기업 대표 21명 이 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문화예술 분야 투자확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세나의 어원이 된 고대 로마의 정치가 마이케나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가능케했던 데리치 가문을 예로 들면서 기업들의 문화예술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경제체질을 혁신해 다시 한 번 경제 대도약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야할 길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 후원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우수 메세나 사례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명

예를 높이는 방안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기업인의 도움으로 세 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라며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경제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브랜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처럼 만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스포스 서십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국메세나협회 박용현 회장은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복 70년 3·1마라톤 50년 60년 호남예술제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

양승조 사무총장 “4월 보선, 1곳 이상 이겨야 의미있는 승리”

야권분열 현실화면 선거 전망 불투명 기대치 낮춰

새정치민주연합 4·29 보선기획단장인 양승조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의원 지역구 3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결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1석 이상'을 제시했다.

양 사무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일단 3석을 다 얻었으면 좋겠으나,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1석 이상은 승리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권 분열 현실

화로 선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아 새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려는 포석도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국회의원 보결선거는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로 꼽힌다.

하지만, 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乙)을 비롯, 서울 관악(乙), 성남 중원 등 모두 야당 의원 지역구로 지나치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양 총장은 ‘너무 엄살’이라는 지적에 대해 “야당 후보가 난립해 있는데도 현역 의원이 전부 다 통합진보당 출신이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1석 이상 확보가) 최소한의 의미 있는 승리라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과소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윤근·이완구 ‘눈물 재회’

우 “마음 아팠다” 이 “성찰의 기회” 총리 임명과정 고충 토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행정부의 2인자와 야당 원내사령관으로 재회했다.

이날 국회로 인사차 찾아온 이 총리와 우 원내대표는 오랜 지기와 재회한 듯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특히 여야 협상의 파트너로서 4개월간 ‘찰떡궁합’을 자랑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을 접어놓고 임명에 반대해야 했던 우 원내대표는 미안함

탓에 공개 발언에도 눈물을 글썽였다.

우 원내대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비추자, 이 총리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감정을 추스른 우 원내대표는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훌륭한 저의 파트너이고, 훌륭한 인생 선배였다.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로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가야겠다고 견뎌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이 총리는 “항상 우 원내대표를 가리켜 귀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이라며 “청문 과정이나 임명동의 과정에서 저를 쳐다보는 애처러운 눈초리에 제 가슴이 몽클해서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과정에서 진심으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아 아주 값지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제비즈니스호텔 메디컬센터 긴급임대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도로 철거후 지하화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대)확보
현금투자 최적지임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평)	병,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7층 (120평)	병,의원 (치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6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5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4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3층 (120평)	비즈니스 호텔
2층 (120평)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450평)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시, 한의원, 판매시설,참치전문점
지하층 (270평)	스포츠타지, 유희/댄스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0평)	사무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클럽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주)21세기 산업개발

국제비즈니스호텔 메디컬센터 (병원 개인의원, 약국형 등)
(백운동 국제비즈니스호텔)

문의 010-2112-323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해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해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인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교육시간 : 오전 9:00-1:20
- 제출서류 :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 문의할 곳 :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해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 문의할 곳 :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광신대학교